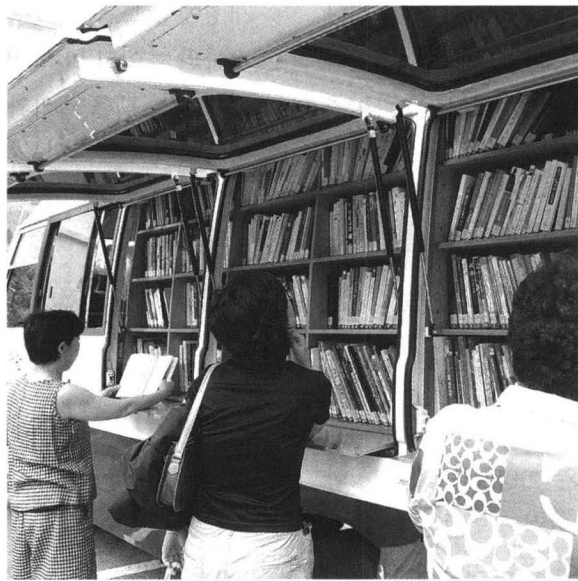


책과 사람 사이에 길을 놓다

시민단체가 펼치는 책읽기 운동

'자발성·자율성 근거한 사회적 동력' 돼야



작년에 대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아침독서 10분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충남, 경기, 광주, 서울의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아침이면 초등학교생들의 책 읽는 풍경을 만날 수 있다.

1988년 일본에서 시작된 이 운동을 국내에 처음 소개한 한상수 아침독서운동본부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운동이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펼치는 책 읽기 운동은 자발성과 자율성에 근거한 사회적 동력을 지닌다는 데 그 강점이 있다. 문제의 자각, 대안의 모색, 인식의 변화에 대한 실천력과 행동력을 겸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책 읽기 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들의 힘도 바로 여기 있다.

'책 읽지 않는 사회'라고 개탄들 하지만 그렇다면 '책 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스스로는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을까. 그들의 다양한 시도와 모색은 책 읽지 않는 우리 사회를 향한 안타까운 외침이며, 책 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동참해야 할 이웃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아닐지.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대표 허병두)'은 독서교육을 올곧고 즐겁게 실천하고자 오랫동안 현장에서

고민해온 교사들의 모임으로 1998년 발족 이래 교실은 물론 가정과 사회의 올바른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책/따/세'의 사업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청소년 권장도서 목록. 지난 2000년부터 방학 기간을 중심으로 내놓는 권장도서는 청소년들의 독서활동을 도와주는 '나침반'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번 여름 방학에도 31권의 권장 도서를 발표했다. '책/따/세'는 그 외에도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강연회 개최 등을 통해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사회 차원의 독서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이사장 도정일)은 MBC 프로그램 <느낌표>와 함께 전국에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며 알려진 단체이다. 2001년 출범해 올해로 6년째를 맞는 '책 읽는 사회 만들

기'는 정보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여 시민 각자가 자기 삶의 가치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아홉 개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벌이는 이 운동은 책 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홍보 외에도 도서관을 늘리기 위한 정책 제안,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에 대한 홍보, 독서 교육 프로그램 연구, 작가와의 만남, 소외지역 어린이에게 책 보내기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이 단체에서는 주력 사업의 하나로,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는 북스타트(Booksart) 운동도 벌이고 있다. 북스타트 운동이란 원래 영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아기들의 정기 예방 접종 시기에 지역 보건소나 공공도서관에서 아기들에게 '북키트'라는 그림책이 든 가방을 선물하는 것이다. 그림책을 매개로 아기와 부모가 풍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감성과 지성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북스타트의 주된 목표. 2003년 4월 조직되어 중랑구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된 이래 전국 23개 지역에서 진행 중이다.

좋은 책 읽기 가족모임

'좋은 책 한 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세상을 바꾼다'는 취지로 1987년 발족된 '좋은 책 읽기 가족모임'(대표 김수연)은 책이 없어 못 읽는 산간벽지나 섬마을 어린이와 주민들을 위해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동안 전국에 60여 개의 도서관을 개설했다. 공공도서관은 물론이고 서점 하나 없는 마을에 작은 도서관을 개설해 책 읽기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이들에게 책 읽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보통 도서관 한 곳에 3,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최근에는 뜻을 함께 하는 개인 후원자와 출판사들이 생겨났다고 한다.

좋은 책 읽기 가족 모임은 작은 도서관 만들기 외에도 서울 삼성동 등에 무료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서 문화 보급을 위한 홍보지 발행, 독서교실, 독후감 공모, 백일장과 세미나,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아침 독서 추진본부

'아침 독서 추진본부'(본부장 한상수)는 지금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아침 독서 10분 운동'을 펼치는 단체이다. 아침 독서운동은 학교에서 아침 시간에 10분 동



안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책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는 독서운동이다. 아이들이 책을 꾸준히 읽음으로써 책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책이 삶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자는 민간의 자발적 운동이다. 매달 발간되는 아침독서운동 신문을 통해 아침 독서 운동의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아침 독서 운동을 위한 실천적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작년에 대구에서 시작해 올 3월에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함께 펼치고 있는 이 운동은 처음에는 초등학생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중, 고등학생은 물론 기업체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발맞춰 지난 6월 26일 대한출판문화협회, 아침독서추진본부, 국민일보가 아침독서운동의 성공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는 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사랑의 책 나누기 운동본부

소외지역 도서지원, 독서문화 확장 운동을 목표로 설립된 '사랑의 책 나누기 운동본부'(본부장 민승현)는 6년째 군 부대 내 도서관인 '병영도서관'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 이 운동은 사회진출을 앞둔 군 장병의 자기계발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에서 출발한 공익사업이다. 병영도서관은 장서 3,000~5,000여 권 규모에 책상, 의자 등을 갖춘 '미니 도서관'이다. 운동본부 측에 따르면 병영도서관 이용이 활성화된 군부대의 경우 주말 기준 하루 평균 100명 가량이 이용한다고 한다.

운동본부는 병영도서관 한 곳당 3,000권의 도서를 기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동안 각 출판사에 일일이 취지를 설명하고 무상 지원받아 군부대에 전달해오다 지난해부터 교보문고에서 공급받고 있다고 한다. 민승현 본부장은 이 운동이 보다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취재 이주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